

한국문화교류 소식

22호 2016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옛 것 속에 새 것이 있다



김태진

ICKC 연구위원, 한국학박사

지난 가을, 오세아니아주 한글학교 협의회 주최 한글학교 교사 대상 강의 차 뉴질랜드와 피지에 다녀왔다.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 후세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다.

720만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적·문화적 영토를 넓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후세대 또한 미래 자산으로서의 역량과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므로 재외동포 자녀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한민족이라는 집단적 유대감, 정체성 계승, 민족 역량 강화 등의 사회·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재외동포들은 현지에 한글학교를 세워 주말마다 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수가 전 세계 약 2,000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글학교 관계자 초청 연수와 함께 현지에 강사를 파견하는 등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에 힘쓰고 있다.

강의 제목은 '자긍심, 우리 문화로 정하고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을 다루었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재외동포들에게 긍지를 심어주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선조의 유산과 그 가치 또한 부단히 되살림으로써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현대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는 큰 요인이지만 이러한 수치적, 물질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근본적인 힘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강의의 저변에 흐르는 핵심 정신을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하였다. ‘법고창신’은 옛 것에서 배워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는 말로, 우리의 세계기록유산에 나타난 기록 정신과 그 가치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더욱 견고하게 키워 나가기를 바랐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13개로 독일, 폴란드에 이어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과 함께 ‘3위’이다. 세종의 애민정신과 함께 한글의 창작성·과학성이 오롯이 담긴 ‘훈민정음해례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불교 대장경판인 ‘팔만대장경’, 세계 최대의 단일왕조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 왕의 비서가 매일 쓴 세계 최대의 역사 기록물(3,245책)인 ‘승정원일기’, 150년 이상 제왕의 일기가 수록된 ‘일성록’,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체계적으로 담은 전 세계 유일한 그림 기록인 ‘조선왕조의궤’ 등 세계가 인정한 그 가치의 면면을 살펴다 보면 선조(先祖)의 철저함과 기록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실록은 중간에 고친 기록이 있고, 심지어 명(明)의 주원장은 사관의 직책마저 없애버려 명실록이 기록유산에 오르지 못한 반면, 폭군 연산군조차 “가장 두려운 것은 사서뿐”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 앞에 객관적이고 공정했던

우리의 실록, 매일의 기록이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 방대하고 세세하여 동아시아 근세사의 훌륭한 참고 자료이자 꼼꼼하게 기록한 날씨로 기후·천문학자들에게도 활용된 승정원일기,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수원 화성의 완벽한 복원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가능케 한 의궤의 독특함 등 지면 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록물을 다 소개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다 적지 못함이 못내 아쉽다.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첨단기술사회에서 고색(古色)된 전통의 계승은 어려운 숙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도 수세기를 거쳐 집적되어 오늘의 첨단과 학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또한 시대를 넘고 넘어 우리의 정신 가치와 생활양식으로 계승되었다.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선조의 유산과 그 가치 또한 부단히 되살림으로써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현대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새 2016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일임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이다. 확고한 신념으로 흐트러짐 없는 정진을 한 선조의 기록 정신을 ‘법고창신’의 마음으로 되살리며, 2017년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정신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한글학교에서 받은 은혜, 어떻게 다 갚으리……



고 정 미

前 오세아니아 한글학교 협의회장

20년 전, 키위(Kiwi, 뉴질랜드인의 별칭)가 대한민국을 모르듯이 필자 또한 뉴질랜드를 잘 모른 채 남편 손에 이끌려 도착한 이후, 한글학교는 내 인생이 되었고 꿈이 되었다.

18년 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이카토 한국학교를 찾아와 학부형으로 인연을 맺고, 그 이듬해부터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다시 외국인반 평교사로 근무하며 오늘에 이르렀으니 시간의 부름 앞에 저절로 무릎이 굽혀진다.

뉴질랜드에는 한글학교를 아우르는 뉴질랜드 한인학교 협의회가 2007년에 결성되어 현재 13개의 한글학교가 협의회에 등록이 되었으며, 학생은 약 1,500명, 교사는 150여 명이 매주일 봉사를 하

고 있다. 2012년도에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이 생겨 현재 한글학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뉴질랜드 이민역사에 맞추어 20년에서 25년 사이의 역사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한글학교가 교회부설 한글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뉴질랜드 한인학교 협의회 특징은 각 지방마다 대표로 있는 한글학교가 단 한 곳도 교회 소속이 아니라 일반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독특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뉴질랜드 한인학교 협의회는 연 1회 뉴질랜드 전국 교사연수 및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오세아니아 한글학교 협의회를 주도하여 만들었고, 오세아니아 한글학교 교사연수를 호주, 피지 등과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학 박사이자 (사)한국문화교류운동본부(ICKC)의 연구위원인 김태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 오세아니아 교사연수가 되었다.

이제 다시 와이카토 한국학교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필자가 처음 학교를 맡아 운영을 할 때는 학생 30여 명과 교사 5명의 작은 규모의 학교였다. 그러다 2003년 한글학회 주관 교사연수를 다녀오면서 좀 더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학기에 두 번 있는 팀(term)마다, 말하기 대회,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민속전통놀이, 시장놀이, 학부모 공개수업, 한마당잔치 등 수업과 병행한 문화수업을 알리기에 애를 썼다.

그 후 교장을 사임하던 2년 전에는 학생 90여 명에 교사 25명이 운영하는 제법 규모 있는 한글 학교가 되어 있었지만 중간에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다. 한 번은 교실 창문을 잘 닫고 가지를 얹아 도둑이 들어 조용한 일요일에 알람이 울려 이웃 키위들을 모두 깨웠던 적도 있다. 또 한 번은 학생이 교실에 있는 현직 교사의 컴퓨터를 건드려 데이터를 모두 날려 버린 적도 있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기를 22년 역사에 7번. 내 집 없는 설움이 이보다 더 서러울까 싶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극성스런 명성으로 현직 학교 빌리기가 아주 힘들었다. 코앞에 개학을 앞두고 학교를 못 찾아 금식 기도까지 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2년에 걸쳐 경인교대 학생 20명과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을 이용해 특별수업을 해주던 활동은 정말 잊지 못한다. 이 때 우리는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전통 줄다리기 줄 외에 각 전통놀이 수업 재료를 거의 다 받았다. 정말 놀라운 역사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전통놀이 수업 시 재료로 인한 어려움은 하나도 겪지 않는다. 그 밖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이렇게 교장으로 13년간 운영을 하다 외국인에게 한글과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평교사를 자청해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하여 취득한 2급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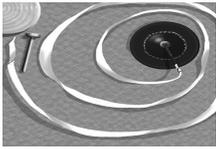
활용할 기회를 가졌다. 아이들과는 또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성인 키위들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느라 애를 쓰면 쓸수록 묘한 매력에 빠져든다. 특히 이런저런 재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수업하는 요리시간에는 학생들 눈이 더 동글동글해진다.

한 번은 떡볶이 만들기를 하는데 삶아간 계란이 머리 위에서 춤을 춘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탁, 탁, 탁’ 아우성을 알린다. 바로 머리에다 계란을 깨는 광경인데 이걸 키위나 우리나라 같은 장난 문화인가 보다. 이 날은 떡볶이도 맛있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소리는 웃음과 함께 더 신나게 들렸다.

이렇게 17년간 한국학교에 빠져 열심히 봉사했던 뉴질랜드에서는 영국여왕 훈장을,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표창을 주었다. 이 상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가르침을 준 우리 학생과 교사들이 받아야 할 상임을 잘 안다. 봉사란 ‘사명감을 가지고 취미생활처럼 즐기며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고 여기는 필자는 오늘도 한글학교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나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아본다.



2016년 오세아니아 한글학교 교사연수 모습



문화탐방기

홍천 마리소리 여름축전에 다녀와서



이창걸

前 국민대학교 교수, 한반도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매년 8월이면 강원도 홍천에서 ‘마리소리 여름 축전’이 개최된다. 마리소리 여름축전은 올해로 4년째 개최되며 뜻 깊은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2016년에는 8월 19일~21일 2박 3일간 예년에 비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러한 행사를 놓칠 수 없어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회원인 정순영 박사와 12시경에 길음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함께 온 한상범 박사와 셋이 정 박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여름축전이 열리는 홍천으로 향했다.

홍천에는 본 행사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마리소리음악연구원이 있다. 서원대학교 이병욱 교수와 연구원의 황경애 사무국장 두 분이 모든 행사를

알뜰히 살피고 계신다. 이병욱 교수의 부인이신 황경애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이매방살풀이춤 이수자이다.

오랜만에 서울 시내를 벗어나 산과 물이 수려한 강원도에 가고 있다는 마음에 조금은 흥분이 되곤 한다. 1990년 초에 강원대학교 사회학과에 강의를 나가면서 경춘가도의 풍경에 매료된 적이 많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멋은 우리 인간이 흥내를 낼 수 없는 묘한 이끌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마다 사계절 변화하는 산을 만끽하러 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은 정 박사가 약간 여유를 부리며 운전을 잘한 덕분에 오후 4시 경에 홍천 마리소리악기박물관 공연장에 도착했다. 이병욱 교수님 내외분, 임병걸 어울사랑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신다.

주변에 얇은 계곡이 있고 건너편에는 못 보던 작은 한옥이 새로 세워져 있다. 계곡에 물이 없는 게 흠이지만, 주변의 숲 내음이 상쾌하다.

어제 오후 7시에 개막식을 하면서 사물놀이와 가족동화노래극 <무궁화 가족 홍천 꿈동이>를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한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에 조금은 미안했지만 내색을 못하고 야외 식탁에서 막걸리와 부침 그리고 도토리묵을 서로 권하면서 맛

있게 먹었다. 조금 있다가 ICKC의 박의근 재정위원장께서 손수 차를 몰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셨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상류계곡에 있는 국제농업개발연구원 숙소 아래 계곡으로 인도한다.

깊은 산 속의 계곡물은 차갑다. 게다가 상쾌한 공기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있다. 계곡 중앙에 4개의 의자와 중앙에 막걸리 3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양말을 벗고 발을 계곡물에 담그니, 마음속 까지 시원함을 느낀다. 박의근 회장께서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함을 표시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막걸리도 주거나 받거나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아, 이래서 우리 선조들은 무더운 여름에 탁족(濯足)을 하며 무더위를 이겨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선 냉방기(에어콘)가 필요 없다. 자연 숲의 바람과 흐르는 물소리, 숲 사이에서 나오는 숲향기가 피로를 말끔히 씻어준다. 옛 선인들의 시한수가 떠오른다.

沙頭酒盡欲斜暉

濯足清流看鳥飛

此意自佳誰領取

孔門吾與舞雩歸

사천(沙川) 머리에서 술이 다하고 해는 비껴가는데

맑은 물에 발 씻고 날아가는 새 바라보네

이 뜻은 내 스스로 좋거니 그 누가 알랴

孔夫子께서도 무우에 놀고 돌아옴을 허여했다네

이 한시는 익재(益齋) 이제현 선생의 송도팔영(松都八詠) 중에 나오는 웅천계음(熊川禊飲)이다. 3월 3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사천(沙川) 가에 모여 좋지 않은 일을 씻어내며(祓除), 술을 마시고 놀면서 지은 시다. 그 당시 익재(益齋) 선생께서도 옛 현인(賢人)인 증점(曾點)의 무우영귀(舞雩詠歸)하며 한가롭고 자연스러운(悠然) 기상을 흠모했으리라.

이 계곡에는 나는 새(鳥飛)는 보이지 않지만, 서쪽에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다. 아, 신선이 사는 곳이 따로 없다. 아쉽지만 젖은 발을 닦고 다시 야외공연장에 도착했다.

악기박물관 앞에 차려진 간이식탁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월드 뮤직그룹 “Vinalog”가 “Evolution”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들었다. 기타와 전자 오르간의 합주, 중간에 홀로 연주하는 독주는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1시간 뒤 자리를 옮겨 악기박물관 공연장에 들어가서 김효영 연주자가 출연하는 <마리소리골에 깃든 “생황”>을 주제로 하는 생황 연주를 들었다. “전통과 창작곡으로, 마리소리골을 쉼 놓다”에 딱 적합한 생황 연주였다. 생황의 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우아한 몸짓으로 청중들의 시선과 마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적 에너지에 모두가 빠져들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소리와 합성에 김효영 연주자도 함께 호응해 주었다.

오후 8시 30분부터 야외무대에선 “홀림 樂담”이 시작되었다. 낭랑한 목소리의 노래 가락과 노래 사이사이 이끌어내는 담화가 어우러져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다. 시간과 함께 산 속의 음악축제는 점점 열기를 더해 간다. 참석한 청중들은 도깨비처럼 하나가 되어 어울러 같이 뛰기도 하며, 함께 빙글빙글 돌아가며 신나게 춤을 추었다. 얼마 있다가 독창으로 또는 독주로 우리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다. 깊어가는 밤과 함께 산 속의 음악잔치는 열기가 더해 가고, 청중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즐기고 있다. 매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악의 축제에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에겐 순수한 시심(詩心)이 있고, 이를 느끼는 흥(興)이 있으며, 이에 신바람이

가미되면 모든 한국인은 신명(神明)이 나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1시간 지나서 진도에서 올라온 국악그룹 “바라지” 팀의 <씻김 시나위> 공연이 시작되었다. 이 마리소리골에 갑자기 나타난 하얀 고깔을 쓰고 양 손에 무명베 한축을 들고 좌우로 흔들며 추는 씻김춤사위는 고요함(靜)과 움직임(動) 동작에서 은은한 곡선미로 이어지며, 우리 삶의 슬픔(悲哀)과 기쁨(歡喜)으로 승화시키는 듯하다. 또 우리를 예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게 했다. 어릴 때 정월 대보름날 동네 초가집 마당에서 벌어진 살풀이처럼, 이 <씻김 시나위>는 음악 축제에 참석한 모두를 한판의 굿 잔치로 열광시켰다. 구성진 창과 함께 하는 이 산골의 남도굿거리 축제는 정말 신나는 열정으로 가득 찼다. 빠르게 쳐대는 사람의 몸짓, 동시에 나는 북소리, 이에 굿거리장단과 합해져서 커다란 합창곡처럼 멋진 화음(Harmony)을 이루곤 한다.

이 신난 음악의 축제에 모두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흠뻑 젖어버렸다. 孔夫子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

하여 마음에 드는 음악(韶樂)에 푹 빠져서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는 내용이 논어(述而篇)에 있다. 옛 성인(聖人)도 아름답고 듣기 좋은 음악에 감동을 받아 석 달 동안 그 음악을 배우느라 몰입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삶에 즐거운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심심할까?

음악 연주가 끝나고, 박의근 회장께서 손수 담긴 돌배주 파티를 열어주셨다. 고즈넉한 깊은 산속에서 무공해 돌배주를 정갈한 안주와 함께 마시다 보니 마치 우리들이 별난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주변은 높은 산들로 둘러있고, 앞 마당가에 흐르는 시냇물은 깊어가는 여름밤을 더욱 운치 있게 해준다. 어느 듯 주변의 사위는 칙흑으로 변하고 들리는 소리는 솔바람 뿐, 조금 있다 정적이 밀려온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사흘쯤 미리 와서 이 마리소리골에 머물며, 산 속의 깨끗한 정기와 이병욱 교수님의 넘치는 열정, 그리고 단원들의 음악적 에너지를 듬뿍 만끽하고 싶다. 



2016 흥천 마리소리 여름축전 개막공연 모습



“합리적이라 여러 조합 가능”... 日 도쿄서 빛난 한글 디자인

10월 7일, 훈민정음 간행 570주년을 기념해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일본 도쿄(東京)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특별전시 ‘훈민정음과 한글 디자인’이 22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첫 해외 전시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한글창제 원리와 디자인 측면에서 본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상, 입체, 그래픽, 설치 미술 등 작품 30여 점이 선보였다. 한글 음성 자료와 이를 나무 조형물 및 빛으로 시각화한 작품, 한글 모양을 활용한 블록, 표면에 한글을 형상화한 장식장, 형형색색의 한글로 만든 퍼즐 등은 한국어 사용자조차 한글의 새로운 면모를 깨닫게 했다. 또 ‘한글의 탄생’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일본 한글학자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메시지가쿠인(明治學院)대 객원교수가 한글 창제의 배경이나 한글과 일본 문자의 차이 등을 설명하는 영상도 상영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마에카와 사무차관은 작품을 관람한 후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 조합이 가능하고 이를 응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_ 연합뉴스 2016.10.07.





세계태권도연맹, 바티칸서 시범 공연

바티칸에서 역사적인 태권도 시범공연이 펼쳐졌다.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시범단은 10월 5일(이하 현지시간)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신앙과 스포츠 회의' 개회식에서 시범공연을 했다. 7일까지 사흘간 '인류에 봉사하는 스포츠'라는 주제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교황청 문화평의회가 주관하고, 유엔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협력해 마련했다. 세계 각계 지도자가 모여 신앙과 스포츠가 어떻게 긍정적 가치 증대에 기여하면서 인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로 프란치스코 교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조정원 WTF 총재 등이 개회식에 참석했다. WTF 태권도시범단은 화려하고 역동적이면서도 경건한 시범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정원 총재는 이번 회의 기간 국제스포츠 지도자들에게 '스포츠평화봉사단'의 창설과 태권도박애재단(THF)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스포츠평화봉사단은 WTF가 2008년부터 실시해온 태권도평화봉사단 활동을 IOC, 유엔과 함께 모든 올림픽 종목으로 확대하려는 프로젝트로, 태권도평화봉사단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천300여 명의 봉사단원을 100여 개 국가에 파견해 봉사 활동을 펼쳤다. 태권도박애재단은 국제스포츠기구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전 세계 고아와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WTF가 올해 스위스 로잔에 설립했다. 조 총재와 WTF 태권도시범단은 8일 이탈리아 로마의 난민촌도 방문한다. 11일까지 이탈리아 전역에서 태권도시범단의 공연도 계획돼 있다.

출처_ 연합뉴스 2016.10.06.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사)나의꿈국제재단 장학금 전달

지난 10월 4일(화), (사)나의꿈국제재단(이사장: 손창현) 측에 미화 1,000불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본 장학금은 'ICKC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 및 역사를 연구하는 재외 동포 학생에게 지급되어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ICKC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이러한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뉴질랜드 한글학교 교육물품 전달

지난 9월 30일(금), 오세아니아주 한글학교 협의회 교사연수를 맞아, 뉴질랜드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물품(한지, 떡물, 색종이, 필통 등)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 활동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 故 김영주 화백 회고전 관람

지난 9월 7일(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정문규미술관에서 열린 <故 김영주 화백 회고전>을 관람하였다. 故 김영주 화백(1920~1995) 독특한 조형세계를 구축하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로서,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전'이라는 야심찬 기획 전시에 걸맞은 여러 훌륭한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016 후원하여 주신 분

2016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게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재근, 구병진, 구철희, 김건길, 김명수,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응철, 김정수, 김정부,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종익, 김진원, 김호일, 도무희, 문영호, 박관용, 박신재, 박용수, 박원출, 배대환, 변상인, 서형수, 성효동, 심재익, 위호인, 이대근,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정남, 이창걸, 이향구, 이현목, 장호익, 전영섭, 정순영, 정영수, 장진화, 장한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최준영,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홍사중,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신한금융지주, (재)아시아발전재단, JEI 재능교육 (가나다순, 2016년 12월 5일 현재)

총액 : 55,19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하늘공원 탐방

지난 10월 25일(화),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한 하늘공원 일대를 탐방하였다.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펼쳐진 거대한 억새밭은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하였다. 이전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 시간이었다.



■ '이병욱과 어울림'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

지난 11월 20일(일), 한국문화 융성을 위해 ICKC와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 산하 '이병욱과 어울림'의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에 참석하였다. 도올 김용옥 교수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서원대학교 이병욱 교수의 예술 인생을 음미하고 만끽했던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울사랑 송년음악회와 함께 하는 'ICKC 송년회'

2016년도 끝자락에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ICKC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ICKC 송년회'는 본회에서 문화진흥사업으로 후원하고 있는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송년음악회 행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맛과 멋을 음미하며 2016년을 뜻 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함께하는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일시 : 2016년 12월 28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02-2261-0500)
전석 30,000원

주최·주관 : 어울사랑,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
후원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문화유산국민신탁, (사)제주평화의길, 수당기념관
협찬 : 마스트바이오, (주)편안택시, 고려이앤씨, 바이오셀글로벌, 여성의류인지크
교보생명대성지점, 건양치과, 하이파워텍(주), 뉴현대건설